

## HOT PEOPLE

이강승은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다. 드로잉 수채 자수 판화 오브제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퀴어의 역사를 재조명해 왔다. 남미 출신의 큐레이터 아드리아노 페드로사가 진두지휘하는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4. 20~11. 24) 본전시에 이강승이 참여했다. 자르디니, 아르세날레 양쪽 전시장에 신작과 근작을 선보였다. 비엔날레 프리 오픈링 기간에 베니스 현지에서 그를 만났다. 이강승은 시공을 초월해 퀴어사를 발굴하고 섬세한 수공예적 방법론을 펼치며 연대를 모색한다. / 김해리 선임기자

### 퀴어, 정원에서 광장으로

베니스비엔날레는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미술축제다. 매회 바뀌는 예술감독이 대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춰 현대미술의 거장과 최전선 기수를 그러모아 본전시를 꾸민다. 이번 베니스비엔날레는 브라질 상파울루미술관장 아드리아노 페드로사가 감독을 맡아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를 선보였다. 서구 주류의 권위와 폭력에 눌러 평가절하되거나 배제된 ‘이방인’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에 경종을 울리는 기획이었다. 베니스비엔날레는 컨템퍼러리아트와 나침반으로서 ‘내일의 오늘’인 미래의 아트씬을 앞당겨 그려보는 자리이기에 전 세계의 아트 VIP가 이곳에 모인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파티장처럼 한껏 격앙돼 있던 지난 4월 18일, 환영과 축하의 키스로 시끌벅적한 전시장과는 다소 동떨어진 베니스의 한 카페에서 이강승을 만났다.

“둘, 깃털부터 판화에 자수까지... 한 작품에서만 해야려도 요소가 엄청 많아요. 설치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겠어요.” 첫 질문이었다. 이강승은 이번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이례적으로 자르디니와 아르세날레 양쪽 구역 모두에 각각 대형 설치, 평면작업 〈무제〉 연작과 영상작업 〈라자로〉를 출품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자르디니 센트럴 파빌리온에는 그간 발전시켜 온 드로잉 수채 자수 판화 오브제 설치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대형 홀 규모의 공간을 가득 채웠다. “크레이트에서 작품을 꺼내 포장을 푸는 데만 나흘이 걸렸어요. 그나마 저는 비엔날레 참여 제안을 일찍 받은 편이라 전시 오픈하기 몇 달 전에 미리 와서 여유 있게 설치할 수 있었죠. 아드리아노 감독이 사전에 이탈리아 기반의 여성 퀴어 작가로 지난 2020년 작고한 로마니

# Lee Kang Seung

아티스트

이강승 / 1978년 출생. 캘리포니아예술학교 석사 졸업. 로스앤젤레스 빈센트프라이스트뮤지엄(2023), 갤러리현대 서울(2021), 커먼웰스앤 카운슬 로스앤젤레스(2021, 2017, 2016), 산타 모니카 18번가예술센터(2020), 원앤제이갤러리(2018) 등에서 개인전 개최. 로스앤젤레스 비엔날레(2023), 카셀도쿠멘타15(2022), 뉴뮤지엄트리엔날레(2021), 광주비엔날레(2021) 등 유수의 국제전 및 〈올해의 작가상〉(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23), 〈Touching History〉(람프프링스아트뮤지엄 2020) 등의 단체전 참여. 8월 말 상파울루미술관에서 개인전 개최 예정.









에블리와 저를 한 전시실에 꿰어링할 거라 귀뜸해 주어, 우리의 작품이 공명할 풍경을 상상하며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자르디니 전시장 바닥에 칸 8×3m 크기의 메인 신작 〈무제(별자리)〉는 꾸준히 디벨롭해 오던 일명 ‘정원’ 작업의 연장선이자 확장판이에요.”

이강승의 작업 세계에서 정원은 중요한 키워드다. 그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가는 영국의 아방가르드 영화감독이자 퀴어 문화의 대변자였던 데릭 저먼이 에이즈 합병증으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가꾸던 프로스펙트 오두막을 답사하고, 그곳에서 정원의 치유력과 생명력, 우주를 움직이는 순환의 섭리, 시공을 뛰어넘은 연대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에 이강승은 저먼의 오두막에서 주운 자갈을 대형 드로잉으로 그리다가 하연, 정원에서 자라던 꽃과 식물을 삼베 자락에 반짝이는 금실로 수놓거나, 남산, 탑골공원, 낙원상가 등 서울의 게이 크루징 스폿에서 수집한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어 저먼의 조각과 구별 없이 섞어두었다. 이후 그는 한국의 인권운동가 오준수, 홍콩계 사진가 첵룽치, 미국 수어 알파벳을 고안한 마틴 윙 등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가던 퀴어들의 기록물과 창작물을 전유하고 이를 한 작품에 번주, 혼용해 그들의 용감한 사유를 소생시켰다. 서로의 존재를 알았을 리 만무한 무명과 유명한 퀴어를 포용의 낙원에서 길러낸 것이다.

### 시간은 나선형으로 흐른다

이번 신작 〈무제(별자리)〉에는 더욱 풍부한 레이어를 더했다. 로스앤젤레스의 엘리시안공원, 싱가포르의 포스트로드해변 등 퀴어들의 은밀한 만남이 이뤄졌던 세계 각지의 장소에서 나무, 진주, 깃털, 솔방울, 화석 등 소형 자연물을 오브제로 가지고 왔다. 이 자연물들은 홀로 있기도 하지만 서로를 지지대 삼아 기대어 있기도, 작게 난 구멍을 통해 새로운 하나가 되어있기도 하다. 일부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미세한 공기의 저항에도 파르르 떨린다. 또한 잡지, 사진 등으로 전해지는 퀴어 커뮤니티의 시각 이미지를 흐릿한 흑연 드로잉으로 그리고, 1910~20년대 일본에서 생산된 금실로 자수한 이미지와 텍스트를 사이사이에 배치했다. 그간의 이강승 작업 세계를 총집합한 ‘가든 유니버스’가 펼쳐져 있다. 작가는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온, 저마다 슬프고 아름다운 사연을 숨긴 퀴어사의 징표를 각각의 별이 이어져 신화와 전설이 되는 ‘별자리’처럼 포개어 두었다. 말하자면 이강승은 오래된 터를 정성스레 갈고 새싹을 틔우는 정원술(庭園術)의 방법론으로 퀴어사를 고고학적으로 수집, 발굴하고 이를 미래로 전수하는 것이다. 이강승의 ‘손’과 ‘눈’으로 경작된 창조적 대지인 정원은, 비로소 소수자 존재가 강력한 울림을 일으키는 일종의 ‘광장’이 된다.

그러나 이 광장에는 과격한 혁명의 구호가 아니라 서정시와 같은 운율이 울려 퍼진다. 마치 알곡을 줍듯 쭈그러 앉아야지만 아스라히 눈에 들어오는 금빛의 문장들. 그중 하나는 흑인 여성 SF소설가 옥타비아 버틀러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에 등장하는 대목으로 추정된다. “As wind / As water / As fire / As life” 소설의 주인공 로런은 세상의 그 무엇도 자신을 구원하지 않기에 스스로를 구원하기로 다짐한다. 그는 목사인 아버지를 떠나 새로운 종교를 찾기에 이른다. 로런이 찾은 신은 ‘변화’이다(God is Change). 그는 모든 것이 파괴된 세상에 변치 않은 진리는 오직 변화뿐이라고 여기며, 변화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의 창시자가 된다. 이강승도 예술이 만들어낼 점진적 변화를 믿는다. “시간은 나선형으로 흘러가는 거 같아요. 때로는 앞으로, 때로는 뒤로. 시간이 흐른다고 다 발전하진 않죠. 제가 원하는 세상은 살아생전 오지 않으리라는 걸 알아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변화의 씨앗을 심는다는 의무와 도리를 다할 뿐이에요. 이번 베니스비엔날레의 주제가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였죠? 소수자, 남반구, 제3세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전시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 여기 방문할 주류의 ‘시민’들이 몸소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기분을. 그리고 당신들이 철썩같이 믿어온 지식과 질서도 변해가고 있다는 걸.”

〈Constellation(Blood Moon Hands)〉 연작  
월넛 프레임, 염소 가죽, 삼베, 흑연, 진주,  
실링 왁스 외 혼합재료 각 133×92×6cm  
2023\_2024 베니스비엔날레 자르디니의  
이강승 섹션 전경.